

# 행복한 책 읽기

슈테판 볼만 '책 읽는 여자는...' (웅진지식하우스 펴)

책 읽는 아이는 위함하다. 독서를 좋아하다 보면 제 나이보다 정신의 키가 더 자라는 법이다. 남몰래 들여다본 깊고 신비로운 우물 속을 또래 아이들은 알 턱이 없으므로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그들이 시시해 보일 것이다. 사육의 눈높이가 달라지니 친구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결국 책 읽기에 빠진 아이는 말수가 줄어들다가 섬처럼 고립되고 만다.

부모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이루어졌던 유년 시절의 독서는 나중에 별반 힘을 쓰지 못한다. 부모가 희망하는 모범적인 청소년의 조건은 책을 읽지 않는 것이다. 배짱이 같은 여유를 부릴 겨를이 없다.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은 독서와 병행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소설 나부랭이나 읽고 있는 학생



린다면 어리석은 파멸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책 읽는 시간만큼은 아무도 간여할 수 없다. 자신만의 고립을 즐기다가 정작 책을 다 읽고 나면, 훌쩍 커져버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여성의 책 읽기도 마찬가지로였다. 책을 소유하거나 읽는 행위가 특권층 남성에게만 허용됐던 시대에 여성은 숨을 죽였다. 근대 이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책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현실

##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는 여성들

을 방관할 부모와 교사는 없다. 미지의 작자와 내면적 교류를 꾀하는 동시에 자아를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최적의 도구가 책이라는 말은 개뿔 뜯어먹는 소리가 되고 말았다. 요즘 학교에 가보시라.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중에서 독서광은 극히 드물다. 입시에 나오는 작품을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두르는 행위는 독서가 아니다. 소문난 독서광은 오히려 학업경쟁에 뒤처져 있거나 수능을 포기한 성적 하위권자들이기 일쑤다. 지루한 자율학습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킬링 타임'의 재료로 독서만한 것이 없다. 책의 수준이야 다소 떨어지겠지만 독서를 통해 유쾌한 고립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아무리 그렇다고, 책 읽기를 어찌 말할 수 있겠나. 독서를 일탈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봉쇄해 버

의 남무한 골레를 벗어던져버린 여성은, 남성에게 위협적인 대상으로 바뀌었다.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는 시각은 그렇게 대두됐다. 책은 현실 감각을 잃게 하고 몸을 허약하게 만들며 독서에 몰두하는 경우 정신병을 앓는 것과 같다고 여성과 아이들의 책 읽기를 폄하했다.

독일 작가 슈테판 볼만은 책 읽는 여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시대별로 소개하면서 독서에 매료된 여성들의 역사를 추적했다. 미켈란젤로의 '쿠마이의 무녀', 렘브란트의 '책을 읽고 있는 노파', 빈센트 반 고흐의 '아들의 여인' 등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친숙한 명화부터 '성경'을 든 성모 마리아나 '올리시'를 읽고 있는 메릴린 먼로까지, 오랜 금기와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세계로 몰입하는 여성들을 조명했다.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지혜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독서는 결코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21세기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



# 남도 구석구석 문화가 찾아옵니다



- 국립민속국악원 '춘향전' 8월28일 고흥문화회관
- 국립현대무용단 '호시탐탐' 9월14일 무안승달문예회관
-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10월25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 국립합창단 초청연주회 10월31일 광양시문화회관
- 국립국악관현악단 '잔치' 11월7일 정흥문예회관



국립극단 '푸른배 이야기' 장성공연 모습.

지난 7월16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국립극단의 '푸른배 이야기'가 무대에 올랐다. 대도시 공연장도 아닌 농촌 지역에서 국립극단의 연극을 볼 수 있는 리라곤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관객들은 모두 상기된 얼굴이었다. 202석인 장성문화회관 소극장은 2시간20분동안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채워졌다.

이날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지방문화향유사업'에 장성군이 응모해 선정되면서 진행된 공연이었다. 장성문화회관 강다나씨는 "공연 티켓이 이틀만에 매진됐으며, 문외도 폭발적이었다"며 "올 처음 공연되는 연극이기도 했지만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립극단의 공연이었던 만큼 관객 모두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고 소개했다.

전남지역을 비롯해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농산어촌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스미고 있다. 지역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예술 강사와 예술버스가 직접 방문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8월부터 전국 지방공작을 누린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문화 소외지역 찾아 풍성한 공연**  
전남, 11월까지 6개 국립예술단 공연도 기대

## 양림동의 음악혼을 듣다

정율성·정추 선생 기리는 작은 음악회... '공연 순수' 내일 오웬기념각

양림동이 낳은 세계적 음악가 두 사람의 음악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

문화예술진흥원단체 '공연 순수(대표 정현기)'는 8월 오후 7시 30분 기독교문화회관 오웬기념각 앞마당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part3: 풍금소리는 소년들의 가슴에 머물고'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 시도문화지원사업의 일환인 이번 공연은 양림동이 고향인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1914~1976)과 검은 머리의 차이코프스키라 불리는 정추

(1923~2013) 선생을 기리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베이스 임해철, 테너 김백호, 소프라노 김진희 교수 등 지역 출신 성악가들과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가 두 음악가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정추 선생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김기중(나주시립합창단 현악악연주단 상임지휘자 역임)의 초적(풀피리) 연주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율성은 독립운동가이자 중국의 3대 작곡가로 360여 곡을 작곡했고 대표곡인 '팔로코엔진곡'은 중국정부에 의해



정율성

정추

'중국인민해방군'으로 공식지정돼 1992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개막식곡으로 연주됐다.

정율성이 중국에서 활동한 데 반해 올해 6월 타계한 정추 선생은 러시아 등에서 음악활동을 펼쳤다. 러시아 음악의

대가 차이코프스키 음악 계보를 잇는 유일한 제자인 작곡가 타네예프의 제자나 나폴리 알렉산드로프로부터 음악을 배운 정추는 '차이코프스키 4대 제자'라는 칭호를 얻으며 '검은 머리의 차이코프스키'라 불렸다.

'양림의 소리를 듣다' 공연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오웬기념각, 이정우 가옥, 우월순 선교사 사택 등 양림동의 주요 역사·문화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의 070-4240-097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물안비)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ole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오시는 길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